

2분기 간담회 속기록

[B대면 간담회] 오늘, 커피 한 잔 어때요?

일자	2021.6.30.(수)
방식	온라인 ZOOM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시간이 되어 2분기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sns로 송출되고 속기로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담회의 진행을 맡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입니다. 비대면 간담회, 오늘 커피 한 잔 어때요?'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오늘 간담회는 총학생회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학우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학생자치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크게 보고안건과 논의안건으로 진행됩니다. 보고안건의 경우,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시작으로 총학생회 내 각 국위원회의 대표 실무진이 학우 여러분들께 2분기 동안 진행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보고드린 후 사전에 구글폼을 통해 종합 받은 사전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추가 질의의 경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질의를 총 2번으로 제한합니다. 보고안건이 끝난 이후에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논의안건을 진행합니다. 논의안건은 사전에 학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상정해주신 안건 3가지를 각 25분씩 논의하고, 현장에서 기타안건을 상정받아 25분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학생회 SNS와 중대중심을 통해 배포된 자료집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단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18학번 최승혁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총학생회장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진행 중이고나 완료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총학생회 - 교학부처 간 간담회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총학생회 요청으로 1학기 학사 운영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 - 교학부처 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측은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교육자치국장이, 학교 측은 교무처장, 학사팀장, 이하 학사 실무진이 참석하였습니다. 학생대표자들은 '현행 학사운영단계의 유지', '대면수업 및 대면평가 시행 시 본부와 담당 교강사의 수강생 이동, 거주, 안전 대책 마련', '실형실습 및 실기수업 운영에서의 구성원 의견 수렴', '강의 재사용, 미업로드 등 부실강의 사례에 대한 강력한 개선안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통과 안건, 의결 안건인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총학생회 회칙 개정', '전체학생대표자 학교본부 재정정보 공개요구 결의', 심의 안건인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보고 안건인 '중앙집행위원회 업무 보고', '각 위원회별 업무 보고', '중앙감사위원회 정기 감사 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운영위원회 - 행정부처 간 간담회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중앙운영위원회 요청으로 재정 정보 공개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 - 교학부처 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측은 총학생회장단,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단, 간호대학 학생회장단,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학교 측은 행정부총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대외협력팀장 및 각 주무부서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학생대표자들은 '본부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2020 회계연도 추정결산과 임의장학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의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 '본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던 관행을 중단할 것', '본부는 학생과 협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진행 예정 사업. 학사 정기협의체 구성을 통한 학사정책 개선입니다. '오늘' 총학생회는 한자 졸업요건, 재수강 학점제한, 학점 이월제도 등의 학사정책 개선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학교본부와 학사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학사정기협의체'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 초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의체의 참석 인원으
 로 학생 측은 서울캠-안성캠(이하 '양캠') 총학생회장단, 양캠 중운위 대표자 1인, 양캠 총학생회 실무진 1인, 학교 측
 은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사팀장, 이하 학사 실무진으로 구성할 것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학사정기협의체는 학생
 대표자와 학교본부가 상시적인 회의를 열어 학사정책의 운영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학사운영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가 학사에 직접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사정기협의체 설립을 위해 본
 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고, 학칙 및 규정에 협의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여 협의체를 학내사회에 안착시킬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주제뿐만 아니라, 수강신청 추점 제도 등 학사 운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또한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 : 이어서 사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63대 서울캠퍼스 오늘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임규원 인사드
 리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많이 있기에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칙 개정에 있어서 중앙집행위원
 회는 실제적 운영을 존중한다면서 특별자치기구는 왜 실제적 운영을 존중하지 않는지 모순이 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
 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회와는 당시 입장차가 있었기에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회칙 개정
 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위원회 활동은 총학생회장단 협의 아래 진행되고 있고, 다만 게시물 보고 절차에 대해
 서는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사안을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총학생회비 총액에서 조율하
 여 집행하고 있고, 인사 또한 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생회관 공적 이용이라면 7시 제한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학생회관은 총학생회 뿐 아니라 동아
 리와 학생지원팀 등 다른 부서가 함께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학생회관 이용 제한에 대한 논의는 건물을 같이 쓰는 담
 당자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해당 조치는 학생지원팀에서 현재 결정
 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
 해서 차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정치적 사안에는 연대했으면서 어떤 정
 치적 사안에는 학생회가 정치적이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오늘 총학생회에서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런 판단
 역시 정치적이고, 학생회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기구이며 목소리 내지 않는 것, 연대하지 않는 것 역시 현행 체제 유
 지라는 정치적 존속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부 단체 연대는 총학생
 회 국장위원장단 회의에서 내부 합의와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이관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대표자나 실무진의 정치적 성향이나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총학생
 회 차원에서의 외부 연대는 구성원 간 논의를 통해 여부가 확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공약과 사업
 이 상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정확히 상충하는 공약과 사업이 무엇인지는 맥락상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총학생회가 선본 시절부터 약속드린 공약이 있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
 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들은 사전에 선거기간에 약속드렸던 기초와 방향성에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존에 세웠던 공약의 기초에 맞게 사업과 정책에 녹여내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금반환운동본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가입 제안 건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중앙운영위원회 논의와 의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은 외부
 단체 가입보다 본부와 직접 교섭하는 것이 의제를 진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중론이었고, 의결 결과 부결되
 어 가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총학생회의 입장은 총학생회 집행부가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만약 의장단인 총
 학생회장단의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중운위와 표결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처의 대학평의원회 자료제출 거부에 관련한 대응 계획을 물으셨고,
 또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대학평의원회에 개진한 학생평의원 의견 요지에 대
 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총학생회장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가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대평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

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 평의원으로서 대학평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평위에 개진한 학생평의원 의견 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그 의견 요지도 그 맥락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안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학생회장인 제가 등록금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하고, 최종 결의한 것들입니다. 이에 대평의 회의 중에는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는 진행하지 않았고, 교수 평의원, 학생 평의원, 교직원 평의원 간 의견차가 있을 때 학생을 대표하여 발언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 :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수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지도내규, 홍보물 시행세칙 개정 협의경과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운위에서 논의를 했고, 해당 내용을 단위요구안으로 주무부서에 전달하고, 이후 주무부서 담당자와 중운위 간 협의절차를 거쳤고, 중운위 학칙 개정 요구안 작성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방학 중에는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서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총무처가 제시한 학생식당 가격인상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무처 자료제시를 근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인상의 경우에는 물가와 인건비 인상율과 타 대학교의 학식 메뉴 가격을 참고해서 총무처에서 산출한 가격입니다. 타대학의 사례가 평균 4천원에서 4천5백원 가량 정도 학식가격으로 되어 있었구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1%,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인상률을 모두 합산하여 학식 가격은 2,8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인건비 인상으로 2013년 2%, 2014년 2%, 2015년 2%, 2016년 3.8%, 2017년 0%, 2018년 2%, 2019년 10%, 2020년 6%를 총 반영해서 3,2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총무팀 입장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총학생회는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하면서 메뉴 및 서비스 개선하는 것, 비건학식 도입하는 것, 결제서비스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했고,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본부의 한대운 전 동아리연합회장 후보자 소송비용 변상 요구 관련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했을 때는 20년 12월에 총학생회 페이스북 메세지로 해당 학우분이 기자회견 제안서 전달하겠다고 쓰신 것을 파악을 했고, 그러나 제안서는 전달받지 못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용을 알아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흑석2구역 흑석동 빗물펌프장 부지 청년주택 유치 관련하여,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총학생회가 관련 사안을 이전부터 자세히 다루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대응계획이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주택이 학우분들의 주거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후 면밀히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故 백남기 前 부총학생회장 추모비 건립 협의체 진행 경과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초기 본부, 동문회, 학생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가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걸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후 총학생회장이 협의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협의가 마무리되어 의혈탑에 현재 故 백남기 농민의 추모비가 건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전문위원 추천은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회계 분석 보고서 상 주요 의혹 규명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가 프로젝트 탈곡기에서 전달해주신 보고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등록금환불협의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을 부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등록금 관련 논의 자리가 있다면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논의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법인의 지속적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을 미달, 인덕회계법인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논의한 바는 없으나 이 경우에는 법인이나 본부, 포함하여 학내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이고 학생사회 차원에서도 중대성이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기점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인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전임교원 총원 상황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진단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전임교원의 부족은 학우들의 수강권과 직결되므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관련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2학기

단위요구안에 요구를 올리는 것도 잠정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등 2학기 대면강의 검토 보도에 대한 외부 보도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2학기 학사운영방식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 권 대학들이 대면학기 시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현재 학사운영에 관련해서 학우 의견을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2학기에 기획 중에 있습니다.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전달하면서 본부에 학생 의견과 요구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자치선거에서 학우들이 각 선본에 자유롭게 질의서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고, 이에 대해 답변 또한 선본 재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가 선거의 한 과정이고 질의서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 롤미팅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축건물 공간배정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간배정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지난 리더스포럼에서 마스터 플랜을 재검토하고 개선, 보완한 후 실행하겠다는 본부 측 입장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터 플랜에 관한 진척상황이라던지 없기 때문에, 공간배정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없고 다만 건물신축에 관련하여 단과대 학생회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질문은연관이 돼서 서라벌홀 철거 관련해서 인문 사범 사과대 수업공간 자치공간 대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건물 신축과 철거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으로 논의 제도에 오르는 시점에서 각 단과대와 대책을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공동행동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미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과 소거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공동행동에서 박영선 캠프에도 동등하게 간담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두 후보 모두 간담을 진행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일정이 맞아서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긴 했으나, 오세훈 후보만 특정해서 활동을 진행한 바는 없고 다른 후보와도 끝까지 일정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영선 후보는 서면으로 답변 주었고, 해당 답변은 총학생회 SNS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대 부총학생회장 성폭력사건 제조사 경과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3대 중운위 임기 이후에 중운위에서 성평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대 총학생회의 국장위원장단에게 질의서를 송부했고 받았던 답변과 증언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했었습니다. 이후 중운위에서 사건 관련 입장문을 게시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논의안건에 관련 주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논의안건과 사전질문에서 동시에 전학대회 의결산출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을 했고 지금 사실관계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표결 진행 때 기존 확운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학대회를 진행을 했고 4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의 유효표와 무효표를 산정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걸렸고 전학대회 진행에 차질. 이에 방법을 다시 재고해보자는 판단이 있었고 이후 집행위원장께서 찬,반의 차가 무효표의 차보다 크지 않은 경우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표결 상에 찬성반대 기권을 발표하고 무효표의 차가 큰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이는 오프라인 전학대회를 가정할 때 한 회의실 내에서 참여자의 찬반기권의 수를 세고 무효나 기권과 같이 찬반이 아닌 표결이 찬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해당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시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전학대회와 가장 근접한 방식이라고 판단으로 안을 냈고, 당시 의장단에게 보고하셨고, 의장단은 당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었으나, 의결결과에 차이가 없는 방식인것으로 인지하여 해당방식으로 진행함을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의 표결의 산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상으로 사실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무효표의 차가 찬반 차보다 적어서 의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지난 전학대회의 의결 결과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변동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결이 된 투표가 하나 있는데, 그 경우에는 회칙 개정의 요건이 2/3 이상 찬성인데 반해 해당 표결의 찬성 수가 2/3을 넘지 못했고 반대보다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부결이 되었고 그렇게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임의적으로 바꾼 일은 없고 표결방식의 변동으로 의결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효표를 산출하지 않았고 찬성반대기권의 세부 명수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는 전체의결결과에 영향은 없더라도 대표자 개개인의 의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결방식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또 이점에 대

해 대표자분들과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간담회를 빌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총학생회장단 보고와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단 보고에 대한 질의가 추가적으로 있는 학우분께서는 채팅장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선착순 2명 1인 1질문이 가능합니다. 네, 먼저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감사합니다. 정치국제학과 학생회장 박성혁입니다. 예 우선 간담회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전학대회 현장에 참석하셨던 학생 대표자로서 의결에 관하여 내부의 방식 변경이 있었다면 대표자에게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네트워크 오류)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총학생회 내부 결정만 있었던 것이고 당일날 학생 대표자들에게 공유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전학대회 때. 이점 좀 확실히 하고싶고요,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효표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가지 안건은 무효표 격차가 더 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그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전학대회 의결과정에 총학생회 내부에 방식 변경이 있었고 이에 대표자에게 공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효표 차이가 크지 않았는지 부총학생회장께서 하셨는데 큰 것이 있었고, 이 의결결과가 영향을 미치었는지 여쭙봐주셨습니다. 답변은 부총학생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이냐고 여쭙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으로 판명이 된 것을 전달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중간에 속기록 확인했을 때 표결방식을 변동한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또 당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도 표결방식을 명확히 일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결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만 스태프에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에 따로 보고를 드린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잘못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그렇다면 현장에 계셨던 학생대표자 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현장에 참석했던 대표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의장단이 이 집계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한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다시는 (네트워크 오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 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할 분은 한 번의 질의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채팅장에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다음으로 중앙집행위원장단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공과대학 도시시스템공학과 17학번 배성호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총학생회실 상주 사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학기가 비대면 학사로 진행되었지만, 총학생회실을 방문하시는 학우분들과 전화 문의를 주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여름방학으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며, 2학기에도 학교 phase단계를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행동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고려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향후 서울시 정책에 대학생, 청년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지도록 하며, 선거에 있어 학우분들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학번 대상 푸양 힐링키트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1학번 신입생 대상 웰컴키트를 배부한 것에 이어 20학번 신청자 1,609명의 학우분들께 푸양 힐링키트를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분기별 간담회 시행입니다. 총학생회장단과 실무진들이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총학생회와의 대화 시간을 진행했으며, 지난 1분기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이어 오늘 2분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여 오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3분기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진행예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과대와의 학생자치 포럼입니다. 2021-2학기 개강 전후,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의 대표자 및 실무진들이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자치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중앙대학교 학생자치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학사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중앙집행위원장단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은 채팅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공공인재학부 3학년 이현수 학우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아까 보고해주실 때 1분기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전부터 계속해서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서 1분기 간담회 이후 속기록이 올라오지 않고 당시 총학생회 카톡 소통창구로는 속기록을 올리지 않겠다고 저한테 답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집행위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분기 간담회에서는 동시 속기가 진행되지 않아서 장애학우분들께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에 대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2분기와 앞으로 진행되는 3분기 간담회는 동시 속기록과 더불어서 속기록을 작성 할 예정입니다.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쭙보주셨는데요 1분기 간담회 취지는 현장성과 자유로운 대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할 때 속기록을 진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것에 중안점을 두고 계획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간담회 속기 진행 요청이 있었고 이후 이 요청의 이유를 대표자와 실무진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학우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3분기 간담회에서는 속기록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추가질의 지금 드리면 되죠? 현장성, 허심탄회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1분기 간담회가 분위기가 딱히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1분기 간담회에 오셨던 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발언권을 엄격하게 제안하면서 엄격한 규칙 아래에서 발언이 있었고, 실제 질의응답의 분위기나 내용도 허심탄회한 인스타 라이브 방송 같은 대화라기 보다는 집행위원회와 특별자치기구에서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해서 학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실무진의 답변을 듣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아마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왜 계속해서 1분기 간담회 그리고 당시 실시간 속기록을 쓰지 않았더라도 녹화를,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로 알거든요? 녹음을 듣고, 녹취록을 풀어서 올리는 게 그렇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요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간담회 속기록을 올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집행위원장 배성호: 우선은, 2분기 간담회의 보고안건 규칙상, 앞에 설명드린대로 선착순 2인에 대한 1인 1질문이 가능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연달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질문에 대해서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1분기 간담회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내부 피드백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2분기 간담회를 보다 자유로운 간담회 속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또한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 간담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질

차와 규칙이 상호간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분기 간담회 속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성과 자유로운 대화에 있었고, 당초에 기록을 남기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분기 간담회는 속기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3분기 간담회에 대해서는 속기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학우분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을 통해 남겨 주시면 한 분 더 질의가 가능합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 할 이야기 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자치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국장 황재은: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교육자치국장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18학번 황재은, 학우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교육자치국은 학우분들이 올바른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학사,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입니다. 먼저, 교육자치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국이 신설된 이후, 학사정기협의체 구성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추후 7월 중에 진행될 학사정기협의체에서는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대표자 및 실무진들이 학사 운영 방식을 비롯하여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학점 이월제도 개편, 한자 졸업요건 폐지, 수강신청 방식 변경 등의 정책에 대해 학교 본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매주 진행한 [2021-1학기 교양과목 온라인 강의 피드백] 16주차까지 진행 완료하였으며, [교육 관련 공모전 확대 중 1번인 학문 연계 공모전]으로 <제1회 창업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형성을 위한 창업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융합·연계 정보 플랫폼 개설과 다전공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수강신청 50% 추첨이관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및 결과보고 카드뉴스 업로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고 두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정기협의체 통해 학교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경과에 대해 학우분들께서 사진질의를 남겨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내용 및 학사정기협의체 진행 경과에 대해 간담회 자료집에 작성하였으니, 자료집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진행 예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 정기협의체를 통해 [재점 기준과 세부 성적 공개 강화] 그리고 [학점 이월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학우분들이 올바른 학습권과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공모전 확대 - 2번인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를 통해 학문탐구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학우분들의 올바른 교육권과 학습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교육자치국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자치국 보고한 것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들은 발언권을 채팅창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인재 학부 3학년 이현수 학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교육자치국 보고 잘 들었습니다. 훌륭한 사업 많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 강의의 질 문제가 저희 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그렇고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강의를 재활용하는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뭐 강의에 불성실하게, 무성의하게 임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다소 일부겠지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치국에서는 혹시 강의의 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혹은 뭔가 기획하고 있는게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교육자치국장 황재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의 질 문제에 대해서 강의 재활용, 특히나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 혹은 불성실한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2021-1학기 교양과목 온라인 강의 피드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학우분들께 의견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양대학에 피드백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양과목을 진행한 이유는 다른 단과대학 차원에서 온라

인 강의를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교양과목 온라인 강의 피드백을 진행한 바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학기 수강신청이 시작이 되고, 1학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강의가 재활용 되고 있거나, 아, 저번학기가 끝나고 나서 강의가 재활용되고 있거나 혹은 불성실한 바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 또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 부분도 학교 측으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추가적으로 한 분 더 질의가 가능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연대사업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사업국장 하수경: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8학번 하수경 학우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연대사업국은 크게 외부 제휴 사업, 비건 학식 도입, 학내 노동자 연대, 농민 학생 연대 활동, 응급의약품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부 제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휴는 간담회 자료집 13 페이지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학내 노동자 연대입니다. 학내 노동자 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문 노동 상담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여 학생 노동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집된 상담 내용은 매주 월요일에 관악구 노동 복지 센터로 전달되어, 신청자는 같은 주 수요일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2주년 세계 노동절 및 근로자의 날 행사입니다. 해당 날짜에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총학생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농민학생연대활동입니다. 비대면 학사가 확정됨과 동시에 봄농활을 진행하게 어려워졌고, 대체 사업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넷째, 응급의약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 이용이 적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건강센터 업무 종료 이후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중앙도서관 사물함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예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내 비건 메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대면 학사가 지속되더라도 수요의 측면이 아닌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거니즘을 공약으로 한 학생회가 논비건 식당과 제휴하는 것에 대해 한 학우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연대사업국에서 비건 관련 정책을 진행하는 목적으로는 학우 분들의 학내에서의 식이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사업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상품들은 모두 비건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의 농활일기' 카드 뉴스에서도 상품인 느타리 버섯을 활용한 비건식 조리법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제휴 같은 경우, 외부 업체와의 제휴이고 당시 제휴를 하면서 학우 분들이 외부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해당 사업의 우선적인 목표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 자체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대사업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연대사업국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한 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학우 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회학과 강서운 학우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학과 강서운: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네요? 네, 연대사업국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 총학생회 sns 에도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5월 1일 노동절을 세계 노동절 및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시했는데 사실 근로라는 말에는 근면성실하게 노동한다라는 뜻 의미가 담겨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든 노동을 존엄하게 하고자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동계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노동절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뒤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를 다 명시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사회학과 강서운 학우님께서 노동자의 날과 근로자의 날을 혼용 표기한 데에 대해 질의해주셨습

니다. 연대사업국장께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연대사업국장 하수경: 네, 일단은 현재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가 공휴일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병기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노동절 카드 뉴스에도 해당 내용을 설명해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분이 부총학생회장님이기 때문에 제 답변에 덧붙이실 부분이 있다면 추가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 네, 마이크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덧붙이기 보다는 방금, 아, 네 마스크를... 덧붙이기 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담당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하려던 것이 초기계획이고 다만 사업에 대해서 국위원회 간 상호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기념일 정식명칭이 있기에 해당 내용도 병기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세계 노동절 및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정치 단체나 국가기구에서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을 병기할 때 쓰는 거의 공식적이 표현이기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이 가지는 의미적 차이에 대해서는 담당인원들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 점을 이 부분을 콘텐츠로나마 보완하기 위해 5월 1일에 게시물으 업로드 하면서 관련 명칭의 의미 차이를 설명을 했고, 각 명칭이 어떤 환경이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명칭인지 강조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관련 질문에 대해 연대사업국장과 부총학생회장께서 답변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분 더 질의가 가능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학우 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학과 강서윤: 제가 앞선 발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는 건 혹시 불가능한가요?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당초 계획은 두 명에게 1인 1질문이 가능하게 규칙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1명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서윤 학우님께 추가 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학과 강서윤: 네, 알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추가적으로 연대사업국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학우 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학과 강서윤 학우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학과 강서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소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서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총학생회 게시물에서 근로자의 날과 노동자의 날의 의미 차이에 대해 충분히 의미를 설명해주셨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굳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동시에 병기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학우 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상복지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복지국장 최영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일상복지국장 인문대학 프랑수어문학과 19학번 최영현 학우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일상복지국이란 학우 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국입니다. 우선 1분기 간담회 이후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야식 판매 사업을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1학년도 중간고사 응원 이벤트는 'MBTI에 따른 나의 공부 방식 댓글 작성'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70명의 학우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기말고사 이벤트는 '너의 기말고사를 응원해' 로, 총 363분의 학우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각 이벤트마다 40명을 랜덤으로 추첨 완료하여 선호하시는

간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며 기말고사 이벤트의 경우 아직 회신을 주시지 않은 학우 분들이 계셔서 추후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진행 예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내 셔틀 버스 사용 활성화입니다. 이는 교내 셔틀 버스 어플에 대한 개선을 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하계 방학에 구체적으로 사업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내 잉여 공간을 활용한 학습 공간 확충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건물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추세에 따라 사업 진행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우 분들의 일상 속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일상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간식행사 인원이 너무 적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야식 판매 사업에 할당된 금액을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과대와 과 내에서 진행되는 간식 행사의 추세를 고려하여 인원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1학기 응원 이벤트 참여자가 많은 것을 참고하여 2학기 응원 이벤트를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여사업을 대체할만한 상시 복지를 진행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면과 접촉을 최소화한 상시 복지에 대해 최대한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내 학습 공간 확충의 실질적인 정책 이행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문주신대로 1학기 전면 비대면 학사와 폐쇄적인 건물의 이용, 교내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해 교내 건물을 돌아다니며 학습 공간 확충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추세에 따른 2학기 학사가 결정됨에 따라 실질적 정책 이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일상복지국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학우 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가. 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 네, 교내 잉여 공간을 활용해서 학습공간을 확충하시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해주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과거 총학생회에서 이런 사업을 아마 검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소방법 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처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내 잉여 공간을 활용한 학습 공간 조성에 대해서 어떤 소방법 상의 문제를 검토해보시거나 혹은 시설관리처나 총무처와 논의된 바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이라는 것이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는 뭐 물건을 적재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소방법에 근거해서 교내 잉여 공간에 대한 공간 확충을 할 것이고, 현재 310관 지하 6층 잉여공간도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10관 지하 강의실은 다빈치 교양대학 관할이기 때문에 시설 팀이나 교양대학이나 각 주무 부서들이랑 원활히 논의를 하고 학우 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어쨌든 사업법 제약 하에서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추가적으로 한 분 더 질의가 가능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국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략정책국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전략정책국장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 18학번 황재원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전략정책국이 1분기 간담회 이후 진행한 사업과 사전질의에 대한 대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칙 내 부실한 재정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기타납입금과 지원금 및 기타수익의 정의와 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별 회계 정기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5월 17일 진행된 1학기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새로운 재정조항들로 학생회비 사용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의 요약과 총학생회 사업보고가 담긴 오늘의 회의록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중대중심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장애 학우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중대중심에 업로드되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요약이 아닌 속기록으로 작성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학우 분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의록 작성 경과를 알리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회의록 작성의 진행상황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빠르게 회의록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별 카드뉴스에 학사와 총학생회 소식이 담긴 사전달력 보고와 진행 중인 사업, 외부 장학을 정리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학우 분들이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자치국과 협력하여 제 1회 창업융합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교육자치국 보고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진행 예정 사업입니다. 학기말 공약 이행률을 준비 중입니다. 한 학기 사업을 마무리하며 공약 이행률과 사업에 대한 피드백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며 7월 초 업로드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돌아보며 좀 더 많은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대중심 오류 개선입니다. 현재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우 분들이 사전 질의도 주셨듯이 현재 많은 학우 분들께서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인증 오류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회원가입 시, 또는 기타 오류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실 경우 총학생회 SNS 링크트리 내에 있는 구글폼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지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치활동보고 게시판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업체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해당 오류를 개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잦은 트래픽 초과로 홈페이지가 차단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 증가를 원인으로 파악하였으며 트래픽을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대중심만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들에 대한 업로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우 분들께서 중대중심을 사용하여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 졸업요건 폐지 관련 논의의 이어나가겠습니다. 한자에 대해 사전 질의 주신 학우 분들 또한 계셨습니다. 7월 중 예정된 학사 정기 협의체를 통해 학우 분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한자 졸업 요건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중으로 진행될 학사정기협의체 논의 결과는 총학생회 SNS와 중대중심을 통해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학우 분들에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한자 졸업 요건 폐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정책국의 사업보고 및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전략정책국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학우 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국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소통국장 김린: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홍보소통국장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8학번 김 린, 학우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홍보소통국은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 발행물을 디자인하여 학우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한 소통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과 더불어 유튜브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마스코트 푸양 관리입니다. 학우분들께서 푸양을 쉽게 접하고 올바른 활용 사례를 접함으로써 올바른 마스코트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중에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로 학우 분들을 찾아뵈 예정입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입니다. 학우 분들께서 총학생회의 사업정보와 학사 정보 등을 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예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영문 및 다국어 공지의 적용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월간 카드뉴스 및 학생총회 진행방식 카드뉴스에 시범적용 한 바 있으며, 주요한 학사 및 사업 공지에 대해 범위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푸양 굿즈 로고샵 입점입니다. 학우 분들께서 마스

코트 푸앙 굿즈를 안정적으로 접하실 수 있도록 중앙대학교 로고샵 및 홍보팀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권 문화주간 홍보의 경우, 총학생회 대표 계정에서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각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사업과 일정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자체 제작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대체 텍스트의 경우, 5월 게시물부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있으나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는 존재되어있는 상황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메꿔나가고, 앞으로도 모든 학우 분들이 정보를 접하시는 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홍보소통국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앙 활용 증대입니다. 푸앙 활용 증대 이외에도 신속한 로고샵 입점, 인형 제작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학기에는 두 번의 굿즈 사업으로 인해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방학부터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배포부터 시작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근차근 학우 분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과 플러스친구 등을 활용한 홍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학우 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다양한 홍보장구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소통국장 김린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네, 홍보소통국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학우 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사무국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사무국장 김민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회계사무국장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9학번 김민진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회계사무국은 총학생회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및 사무 관리를 통해 총학생회비의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매월 1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카드뉴스와 증대중심을 통해 온라인에서 매달회계 세부내역 및 전체회계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학우 분들이 보다 쉽게 회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9 C:autumn 플리마켓 입점비 관련 추가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간담회 이후 62대 총학생회장님과 회계사무국장님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카우텀 회계에 관한 사항들은 작년 62대 총학생회장님과 문화위원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62대 회계사무국장님께서서는 알고계신 바가 없으므로 이번에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62대 학생회장님과 전화를 한 결과 그리고 작년 전학대회 속기록과 지난 회계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당시 문화부위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통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영수증의 추가여부를 알 수 없음에 따라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학생회는 이런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회계사무국은 전략정책국과 협력하여 기타납입금에 대한 세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회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총학생회 오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회계사무국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학우 분께서는 채팅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일단 뭐 작년 부위원장, 조재연씨죠? 그 분이 연락을 안 받으셔서 조사가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저도 그동안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소 어렵지만 극단적인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재판상으로도 강제로 개인통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나 방안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받기를 좀더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사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난번 조사를 통해서 100만원 가량의 돈은 잘못지출된 것이다, 지출돼서는 안 되는 식비가 지출되었다고 이미 작년 총학생회가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지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잘못 지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지출된 돈을 환수하든지 배상을 받든지 해야 하는 게 저는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 어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잘못 지출한 당사자로부터 지출된 돈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책임을 물으실 계획은 없는지 지금 다시 여쭙보고 싶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께서 잘못 지출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여쭙봐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사무국장 김민진: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최대한 더 조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겠고, 그 관련 책임자도 저희가 파악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칙도 개정하고 재정조항도 강화했으니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미래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학우 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위원회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위원장 이유진 :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문화위원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이유진, 학우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문화위원회는 학우분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학우분들과 함께 고민하여 축제를 비롯한 올바른 대학 문화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문화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토크 콘서트입니다. 5월 27일 온라인 봄 축제의 일환으로 온라인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개그맨 정형돈님, 키즈 크리에이터 최다운님을 모시고 학우분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2021년 1학기 온라인 봄 축제 루카우스입니다. 2021년 1학기 온라인 봄 축제 루카우스는 21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4일에 진행된 '청룡가요제' 라이브를 시작으로 25일 '쥘 골든벨', 27일 '온라인 토크 콘서트'와 '대신 전해드립니다', 28일 이스포츠 대회 'LOL CAUmtDOWN'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플리마켓'과 '우리 걸어볼까요?'도 축제 기간 동안 상시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제휴 사업입니다. 문화위원회는 학우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문화 업체들과 제휴를 맺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극 '사랑일까?', 석과정 서울미술관, 비틀즈 관련 전시와 제휴를 맺어 할인,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예정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2학기 가을 축제입니다. 2021년 2학기 가을 축제를 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2일까지 축제기획단 모집 완료할 예정이며, 축제 기획단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문화위원회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 제8대 성평등위원회 '뿌리' 부위원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홍윤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성평등위원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분기 간담회 이후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상시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 성평등 도서관 사업, 정혈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산하특별자치기구 제8대 성평등위원회 &뿌리& 부위원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홍윤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성평등위원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분기 간담회 이후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상시사

업으로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 성평등 도서관 사업, 정혈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브페미에서 주최한 범우주마녀 OT 공동주체회의에 참여했으며, 62대 총학생회 2차 가해 사건 관련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인에 대한 조사위원회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월간, 또는 상황에 따라 격간 이상의 간격으로 내부 세미나 및 젠더너우스, 젠더 기념일과 성평등위원회의 사업을 소개하는 뿌리 달력, 젠더 소식을 결산하는 뿌리는 자란다 역시 꾸준히 발행했습니다. 학내 운동문화에서 소외되는 학우들이 스스로 운동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성평위와 함께하는 운동 챌린지 1학기 회차를 모두 완료했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할인 캠페인은 접수 기간을 종료한 후 학우분들의 개별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권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인권센터와 함께 중앙대학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인권문화주간을 주관했으며, 성평등위원회는 오픈세미나와 2021중앙퍼레이드를 기획하여 개최했습니다. 오픈세미나는 다양한 페미니즘 의식에 대해 학우분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열고자진행하는 행사로, 1학기에는 비건 페미니즘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2021중앙퍼레이드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 있는 5월과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6월에 걸쳐 진행된 중앙 최대의 성소수자 행사입니다. 2학기에는 1학기 수요조사를 마친 공동구매 사업을 비롯하여 기존에 진행하던 상시사업 및 정기 사업을 개편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질의에 답변드리기 이전 아까 총학생회장단께서 답변해주셨던 "회칙 개정에서 중앙집행위원회는 실제적 운영을 존중한다면서 특별자치기구는 왜 실제적 운영을 존중하지 않나요? 모순이 있어보입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성평등위원회가 첨언하겠습니다. 일단 인사권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평등위원회는 1학기 리크루팅에 성평등위원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위원회 구성원 중 위원장만 면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 총학생회장으로부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원 모집수의 상한선을 권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인사권을 완전히 위원회가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평등위원회는 학생자치와 학내언론이 공인하는 특별자치기구로서의 사료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도 총학생회장단을 설득하고 자치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평위실에 대한 학우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카톡으로 남는 걸 원치 않아 성평등위원회실을 가고싶었던 학생입니다.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공간을 같이 쓰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우분의 안부를 여쭙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은 성평등위원회가 최우선으로 걱정하고 있던 문제로, 아무리 온라인 성폭력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디지털 기록에 남는 등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셨을, 또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셨을 학우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성평등위원회가 공간사용과 독립된 전화기 배정을 요구하고 있긴 하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학기 단위요구안을 통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학교에 해당 사안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우분께 위로를 전하며 준비가 되시면 성평등위원회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성평등위원회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학과 강서윤 학우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학과 강서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강서윤 입니다. 앞서서 성평위 부위원장님께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성평등 위원회 위원 모집 당시에 인원에 상한선을 두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맥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상시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사례 소통창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에 방학에도 중단할 수 없고 총학생회 임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을 이어가야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저희가 정말 많은 실무를 요하고 있음에도 총학생회장께서 본인이 총학생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심으로써 총학생회원들을 관리해야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많아지면 곤란할 것 같다는 식으로 의견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신입회원 모집을 상한을 두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에는 저희에게 지원자해주신 분 중에서 성평위와 잘 맞고 방향을 잘 견지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추가적으로 한 분 더 질의 가능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인권복지위원회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김성민: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학번 김성민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는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와 캠퍼스 심야규찰대 &의혈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내 1,270개의 사물함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상시적으로 신청, 배정, 철거 민원 접수와 문의사항 해결 등을 하고 있습니다.또, 짐 이동 제도를 폐지하고 철거 불요 확인증 신설하여 철거 간 발생하였던 민원을 해결하였고, 학술정보원의 권한 위임 받아 사물함 주변 무단적치물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학내 노동자 감사인사 릴레이 캠페인을 통하여, 단과대 학생회의 손이 닿기 힘든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건물의 노동자분들과 주차요금정산소 방호노동자, 기사노동자, 조리노동자분들을 중심으로 60여분께 감사인사가 담긴 손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자료집 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오기되어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둘째, 의혈지킴이를 운영하여 심야시간대에 교내 치안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교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우분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의혈지킴이는 인권 및 반성폭력 교육, 범죄 예방 및 방법 교육을 받아 규찰 활동에 대한 자격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총무팀의 캠퍼스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 권한을 위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노동절 및 근로자의 날 사업으로 세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학내 노동자 감사인사 릴레이 캠페인을 통하여, 단과대 학생회의 손이 닿기 힘든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건물의 노동자분들과 주차요금정산소 방호노동자, 기사노동자, 조리노동자분들을 중심으로 60여분께 감사인사가 담긴 손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자료집 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오기되어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확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실천들&이라는 이름으로, 학내 노동자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한 경험을 토대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복택배를 진행하여, 생계와 진로를 위해 학내근로,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에게 선물과 응원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인권복지위원회는 인권 관련 사안을 다루는 총학생회 내 두 위원회, 교내 인권센터와 함께 <인권문화주간>을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 자체 행사로는 <성년의 날 사업>과 <인福택배>의 결과 보고가 있었고, 이 외에도 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와 연사 초청, 영화 상영회에 대한 참여 독려형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성년의 날을 맞아 전체 학우가 다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행사를 기획해보았습니다. 라디오 DJ 컨셉으로 각자의 성년을 아름답게 추억하게끔 도와주었던 노앞으로 인권복지위원회는 두 가지 오늘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총학생회의 주요 공약인 교내 비건메뉴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총무팀과의 미팅에 참여하였고, 해당 미팅에서 참슬기 식당에 비건 학식을 도입할 것을 전제로 학식 가격 인상에 잠정 동의하였습니다. 전제조건인 이행을 위해 총무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과정을 상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도서관 열람실 운영 개선입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그동안 학술정보원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했고, 다음 6가지 실천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였습니다. 시험기간 4층 열람실 개방, 천장 누수 등의 시설 보수, 상시 이용 가능한 프린트 설치, 옥상 간식 자판기 추가, 티플룸 제한적 개방과 같은 5개의 공약 조건과 더불어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물함 도난 방지용 CCTV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권복지위원회가 진행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학과 강서운 학우님께서 연대사업국에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내 두 단위에서 한 기념일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연대사업국과 인권복지위원회는 노동에 대해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자주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사업 기획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본부를 고용주의 측면에서 바라보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기존의 노동자 관련 사업을 연대사업국이, 앞으로 혹은 지금도 노동자로서 권익 보호가 필요한 학우분들을 위한 사업을 인복위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단위 모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내 노동자분들을 근로자로서 칭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학우분의 질문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름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용된 이름을 병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시에도,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학우분께서 건의하여 주신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권문화주간에 관한 홍소국으로 들어온 사전질의에 대해 인복위에서 추가답변 진행. 먼저 인권문화주간을 축제로서 잘 즐겨주신 학우분이 있다는 것에 사업 진행자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각 위원회가 재량껏 오프라인 홍보에도 힘써 진행했었는데 다음 행사시에는 인권문화주간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인복위 예산 책정 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학우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권복지위원회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인권복지위원회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인권복지위원회에 여러가지 사업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학내 조리 노동자에 대해 말씀하셔서 한 가지 생각나서 질문드리구요. 현재 학생식당들이 아예 휴업하거나 단축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업 단축 운영하는 곳들의 경우 원래 일하시던 조리 노동자분들이 제대로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있는지, 이미 조사결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만약 없다면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70%를 원래 보상받아야되는데 조리 노동자분들이 비정규직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휴업 수당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복위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연사국 보고 때 질의하려다가 못 여쭙았던 건데 인복위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인복위나 연사국 어느 곳에서나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저번 1분기 간담회 때 학내 노동자분들과의 연대사업 혹은 개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훌륭하고 감사하지만 노동자분들의 노동조합이 지금 4개 정도 조직되어있는데 이런 노조와 조직 대 조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면 좋겠다고 저번 1분기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같이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사업국장 하수경: 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사업 국장이 노조 지부와 같은 연대 상황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미화, 방호 노동자분들 혹은 다른 노동자분들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학생회가 조합원이나 당사자가 아닌 학생회가 임의로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계와 같은 다른 요구 사항을 단위요구안을 통해 본부에 요구하고는 하는데요. 요청 대부분이 학생들이 시설 사용을 잘 해달

라는 당부에도 그쳤고 이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회의 최선이라고 우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따로 진행하거나 사업 진행은 따로 없습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김성민: 네, 그래서 이제 총 두 가지를 질문해주셨잖아요. 좋은 부분 지적해주셨는데 우선 조리노동자분들이 휴업이나 단축 운영등으로 그분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받고 있느냐 그러한 현황을 조사한적이 있느냐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조사를 위해 조리 노동자분들과의 만남을 진행해본적은 없다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감사편지 전달 때 그분들의 노동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찾아뵈었는데 그때 그 감사편지를 할당하기 위해서 인원에 대해서 여쭙보았을때 살짝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답변을 좀 공개해드리자면, 우선 단축운영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게 되신 분들이라거나 원래 일하시던 시간보다 덜 일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한 부분이 있구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제 지금 답변은 한 번 더 조사한 이후 학우들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다만 이 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 집어주신게 좋았고 저도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놓았으니 다음 저희가 학내 노동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시에 이 부분을 저희 담당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지부에 대해서는 연사국에서 충분히 드렸다고 판단되어서 인복위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처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노동자 한분 한분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노동자 분들과 드렸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노동자분들에게 들었던 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었던 그분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연사국장님의 발언 조금만 지적하자면 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중앙대 부회장님을 직접 만나봤을 때, 학생 자치 차원에서 개인개인으로 도움 드리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조직적인 차원의 요구나 현재 상황을 듣고 더 잘 연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민주 노총 공공운수 노조 중앙대 분회, 한국 노총 사회 서비스 노조 중앙대 지부, 직원 노조. 교수노조는 다른 기능이지만 학내 3개 노조에 대해 조직적인 요구가 있는지는 어느정도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추가적으로 한 분의 질의 더 가능합니다. 채팅창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장애인권위원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정승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오늘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19학번 정승원 학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63대 오늘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19학번 정승원 학우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회 2분기 보고안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권 위원회는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 학습권 등 교내 배리어 프리한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입니다. 우선 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이벤트입니다. 장애인의 날이라는 한시적인 개념을 넘어서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는 워딩을 써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카드뉴스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권에 대해 의지를 던졌던 카드뉴스를 게시하였고, 장애인 현장을 손글씨로 적는 릴레이 이벤트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총회 및 전학대회 배리어프리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입니다.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학생사회 주요 의결기구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속기 도입, 오픈채팅방 링크 전송 등 장애 학생들 특히 감각 장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권리 가이드라인과 장애인권학생네트워크에서 활용했던 가이드라인을 중합하여 다시 한 번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대표자 대상 장애 인권 연사초청 강의 실시입니다. 오늘 성적 조회 기간이었는데 성적 조회를 위해 필수로 지정되었다. 온라인 강의로서 듣는 것도 효과가 있으나 성적 조회를 위한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기에 내용적으로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학생대표자 여러분께서는 양질의 교육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처음 도입을 하였고 성평위와 함께 진행하였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였고, 1시간 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의, 장애인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뜻깊은 강연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인권부스 내 장애인권 부스 진행입니다. 이번 장애인권위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인권문화제를 진행하였는데요, 구어, 수화이벤트 진행했고 장애인 문화제, 장애인 영화, 장애인권관련 영화와 책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게시했습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청각 장애 학우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어와 수어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온라인에서 장애 학생들의 소외를 이야기하는지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세미나 진행입니다. 키오스크가 배리어프리하지 못함을 가시화하는 오픈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오픈 세미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온라인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소외와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진행된 세미나는 모두 내부 세미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미나는 학우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로 기획하고 있고 타교와의 연대 세미나도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애인권위원회가 진행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 이행으로 “오늘부터 배리어프리”에서 공지 가이드라인을 완료하였는데요, 정책 이행이라는 것이 단 한번 지켜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 가이드라인을 더 풍부하고 학생자치단위들, 동아리단위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사업을 편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배리어프리 지도를 건물별 배리어프리 지도와 경로 배리어프리 지도까지 해서 다음 전학대회에서 완벽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여름 방학동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권위원회의 보고였고요, 장애인위원회에게 들어온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장인위도 설립 당시부터 장인위의 장학금 편성에 많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작년에는 장인위가 따로 받는 장학금이 없었지만 올해에는 총학생회 내에서 장학금을 할당 받아서 어느정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장애인권위원회 이름으로 총학생회 내 전체적인 장학금의 크기를 키워서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학기 단위요구안을 통해 학생지원팀의 답변을 받은 결과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어떤 협의체를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논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학생회장단과 소통하고 학교본부와도 협상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권위원회의 보고안건과 사전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질의가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과 이현수 학우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공공인재학부 이현수입니다. 장애인권위원회 공간 문제 관련해서 제가 사전 질의를 아마 드릴려고 했는데 못드리고 빼먹은 것 같은데요, 장애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공간이 없고 성평등위원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아까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말씀한것처럼 성평위 차원에서도 큰 문제이고 장인위 차원에서도 장인위만의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인위가 사실 독립적인 공간을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 아마 제작년 61대 알파 총학생회에서는 학생회관 안에 장인위실이 있어야 되기에 그걸 전제로 하면 장인위에게 줄 자리가 없다고 하여 장인위 설립 조차 기피했고 학우들의 결의를 통해 설립되었지만 공간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위

의 공간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겪고 계신 애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권위원회를 성평위실에 깃겨넣게 한 당사자인데요, 죄송한 마음에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장 정승원: 바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겪고 있는 양 위원회의 문제점이 일단은 안그래도 107관 학생회관에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실의 크기조차도 크지 않고 나눠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는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할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명분들이 쌓여야 저희가 학교 본부측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논리를 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학기에 대면 관련하여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점점 더 그런 문제가 심해지고 더더욱 논거가 쌓여서 분명 그 공간을 독립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107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그 당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장애학생 휴게실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관할 공간이 아니고 유관부서가 어딘지도 파악해야 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센터장님의 입장도 들어보아야 되기에 그 공간이 확실하게 사용가능한지도 약간 의문이긴합니다만, 최대한 공간 분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2학기 단위요구안에도 성평위와 꾸준히 연대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도 공간 분리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만약 저희가 단위요구안으로만 올리는 것이 우리도 너무 답답합니다. 학우분들이 생각하시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청할테니 말씀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아마 학생처에서는 학교 자체에 공간이 없다고 공간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텐데 아마 저랑 같이 찾아다니셨죠. 310관이라던지 여기저기 공간이 많은 것을 위원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학생회관 바깥의 공간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또 이번 총학생회는 학생회관안에 반드시 장애인권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시지는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관 바깥에 어떤 대안적인 공간을 계속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간배정심위원회에 학생이 못들어가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장인위에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정승원: 넵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한 분 더 추가 질의 가능하십니다.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보고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준비위원장 허준범: 졸업준비위원장 보고안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오늘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장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18학번 허준범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새롭고 학교특색이 담긴 학위복을 만들기 위해 05월 18일 TFT를 구성하였습니다. 교내 교수님과 각 부처인원들이 모인 TF에서 22년도 2월 학위수여식에는 새로 만들어진 리더디자인 학위복을 입고 학위수여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준비위원회는 리더디자인의 과정중에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주로 하며 TF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행 예정 사업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의 업무를 개편하여 졸업과 함께 취업 및 진로관련 행사 및 업무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졸업준비위원회 개편을 통해 학우분들께 졸업을 준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INC사업단과 인재개발원의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정책 추진을 비롯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취업준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취업관련 업체와의 제휴 및 다양한 취업 및 진로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졸업준비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보고안건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 20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5분동안 휴식을 취하여 20시 35분까지 쉬는시간을 갖고 이어서 논의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EAK-TIME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먼저 앞서 sns와 중대중심에 자료집에 순서상에 시간이 좀 지연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학우분들의 발언이 현장속기와, 추후 속기로 진행되며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총학생회 SNS로 송출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논의안건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구글폼을 통해 가장 많이 상정받은 3가지 안건을 주제로 각 25분씩 진행되며, 기타안건의 경우, 현장에서 안건을 상정받아 총 25분간 진행됩니다. 이때, 주제별 논의안건에서 논의가 제한 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논의를 마치고, 기타안건에서 재상정하여 일정 시간 동안 추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기타안건은 선착순으로 상정하신 안건에 대해 진행하며, 해당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상정된 기타안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타안건의 총 시간은 25분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논의안건에서는 총학생회와 학우간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되었던 보고안건과는 달리, 학우와 학우 간 논의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며, 총학생회 대표자 및 실무진도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자치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학우분들께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인 만큼 상호간의 예의와 존중의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사가 간담회로써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혹은 결정 사항이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호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논의안건입니다. 첫번째 논의안건의 주제는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대한 논의이며, 25분동안 진행됩니다. 제안설명은 총학생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 네, 논의안건 첫 번째,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대한 논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 내 집행기구와 의결기구의 운영에 대한 학생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학생총회의 준비 과정에서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가 각기 가지는 결정의 권한과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4월 학생총회가 무산된 후 자유토의에서는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 등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지위와 사업의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총학생회 내 위원회의 지위는 하반기 전학대회 전까지 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정립하기로 한 바 있으며, 상반기 전학대회에서의 회칙 개정을 통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바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서는 각 학생자치기구 간의 권한,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총학생회 내 지위 등을 포함해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논의에 부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발언하고자 하는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신 이후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 네, 감사합니다.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총학생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서서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학대회때부터 위원회, 이제 특기구와, 특기구 지위에 관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겠다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전학대회가 있는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또 1차 소집 자리에서 또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만큼 총학생회

장님이 그간 특기구 위원장단들과 깊은 논의를 나눌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님께 이제까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여쭙고 싶은데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질문이 수렴되지 않았나요?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아, 아닙니다 수렴되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발언을 요청함에 따라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 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라고 해 주셨는데, 하기 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하려고 했고, 이번 간담회가 끝이 난 후에, 성평등 위원장과 장애인권위원장과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TF를 구성을 하든지 어 각기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 그렇다면, 아직까지 논의를 하지 않으셨다 ... 는 말씀.. 이시군요. 그리고 더하여서 특기구 지위에 대하여 논의하는 만큼, 기타 다른 위원회들과도 논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학생회장 최승혁 : 네. 졸업준비위원회, 문화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는 산하위원회가 맞다 라고 위원장님들께서 직접 얘기 해주셨고,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만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 음...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추가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 어, 네. 논의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번 간담회때는 4월 16일까지 논의를 마치기로 하셨던걸로 알고있긴 하지만. 뭐, 예. 바쁘시니까? 그 점은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얘기한 것은 아니구요, 총학생회장님께서 계속해서 성평등위와 장애인위가 특별자치기구가 아니다, 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평등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써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 관계되신 분들이나 혹은 여기 듣고계신 학우님들께서 잘 알고 논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미 한번 전달은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있지만, 성평등위원회가 생길 당시에 전학대회에서 특별자치기구로 총여학생회 후속기구를 설치한다 는 결의를 분명히 했었고, 그거는 이미 중대신문에도, 당시 중대신문에도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씩.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웃음) 특별자치기구가 아니라는,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논의를 계속해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가는 것 보다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역대의 총학생회장들께서 지금 총학생회장님을 포함해서 역대 모든 총학생회장님들께서 적어도 후보자 합동 공청회자리에서는 약속하셨던 그 특별자치기구의 독립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학생자치의 민주적인 질서와 특별자치기구의 독립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키고 함께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건설적으로 논의하는게 중요하지 특별자치기구가 아니다 라는 이게 말씀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허황된 주장을, 계속 하심으로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어 총학생회장님과 또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는 특별자치기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추가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학우분 계시면,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학과 강서운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과 강서윤 :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강서윤입니다. 우선 주변에 소음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지난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장님께서 직접 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자치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해당 자리에서 의장인 만큼 물론 대표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어, 권한이 있으시지만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보이시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이시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는 않았습시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에 있어서 충분히 함께 내부에서 고민하시고 적절하게 합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총학생회장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 네, 말씀해주신 전학대회 의장으로서의 권한과 지위가 어느정도 되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대표자 일원으로서 충분히 개정안 상정하고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대표자로서, 이제 많은 학우분들로부터 선출된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학우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위배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사회학과 강서윤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과 강서윤 :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어떤 입장으로 해당 의견을 내셨는지도 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학생회장의 의견이 전체 총학생회 의견으로 제시되는 바, 어 일반 대표자들에 비해서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다음으로 국어국문학과 김홍윤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어국문학과 김홍윤 : 네, 발언기회 주셔서...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총학생회장께서 총학생회장을 믿고 선택해주신 분에 대한 도리이고, 총학생회장은 학우분들을 대표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성평등위원회는 가부장제와 젠더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성소수자, 또는 여성, 또는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그 교차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소수자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자 기구에, 자립성과 자치성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학생회장께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전학대회에서, 몸소 반대토론을 하실만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면, 대체 총학생회장께서 대표하고 계신 학우는 누구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께서 우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약자 학생들을 위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면 계실수록, 어 낮은 곳에 있고, 더 피해 받고 있고, 더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위해 대변을 해주셔야 하지,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서 계시는건 어 저희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다 라는 말에는 상당히, 어 어폐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총학생회장이라면 저는, 네. 중앙대의 소중한 학우로서 상당히 큰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다음으로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 네, 안녕하세요. 정치국제학과 박성혁입니다. 아까 강서윤 학우님이 말씀해주신것에 덧붙여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논의안건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학생회장님께서, 그 사회과학대학에서 계속해서 전학대회 도중에 그, 개인인력, 개인의견을 뭘. 표출하실 수 있지만 토론자로 참여하신다던지, 안건을 발의하

신다던지 등의 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회의 상식에 어긋나고, 또 민주적 절차 원리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전학대회 피드백을 올렸는데, 총학생회장님께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올린 피드백을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라, 라고 회신해주신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저희가 제기를 하는 것이고, 피드백을 수용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총학생회장 의지입니다. 따라서 수용거부의사를 밝히시던지, 반론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사회과학대학 단운위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자치성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소음)... 총학생회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다고 확인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다음으로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 네, 총학생회장님께서 총학생회장도, 어쨌든 학생대표자로서 토론에 참가하고 발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자체해야 되긴 하지만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맞는 애긴데,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회의 규칙입니다. 이거는 사실 학생 회의 뿐 만 아니라 모든 회의에서도 다 그런 것이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내려오게 형평성에도 맞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회의 규칙이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견을 음, 제가 전달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일단 어... 의장석에서 토론에 참가하시는 거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걸... 말씀... 아 부적절할 뿐 만 아니라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음 그리고 중립... 성을... 위배...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토론이 어떻게 중립성 위배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토론은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토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립과 양립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거기 모인 모든 대표자들은 중립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의장을 제외하고는 다들 어느 한쪽에 의견을 주장하고 토론하고 지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시든가 학생 대표자로서 하나의 의견을 주장하시든가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다양한 학우 분들께서 발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발언하고자 하는 학우 분들께서는 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총학생회장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 네, 지금 의장단의 발언과 회의 안에서의 발언과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은, 이 논의가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대로 중운위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뭐 예를 들어 19년도 총학생회나 의장이 어떤 안건을 그때 단독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던 그런 식의 사례를 가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오류 혹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 일단 당시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회의체에서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중운위 혹은 그 내부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단독으로 들고 온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지, 어쨌든 의장이 대표자로서 가지고 있는 안건 상정이라든지 토론 참여에, 그러니까 저희가 회칙에서 제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대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 규칙에 따랐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전례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것과 그 규칙 자체를 위배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그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뭐 의장이 발언을 하는 동안에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일반 대표자 신분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그 사례를 드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립성이라는 가치에 조금 더 보완이 될 수는 있겠다고도 생각이 드나, 또 아까 사회적 상규 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상규인 총학생회칙에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 중에 그 지위를 바꾸는 데 대한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회적 상규가 그러니까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발언을 절제해야 하는 그러한 상규가 적용돼야 하는 조직과 총학생회라는 조직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다음으로 총학생회장께 발언을 넘기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네, 어 우선 김홍윤 학우 분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총학생회장은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대변해야 하고 낮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제 스스로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제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치국제학과 학생회장님께서 사과대의 피드백에 대해서 총학생회장이 재논의를 해라는 것을 집어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중운위에서 반론을 제기를 했고 그 반론이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고를 해달라는 의미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께서 뭐 의장이면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중운위의 의장이기도 하고, 집행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전학대회 의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어느 회의체에서도 의장의 권리를 남용해서 중앙대학교 학생자치 자치권을 훼손한 적은 없다, 그리고 제가 찬반토론에 들어갔을 때 중앙대학교 학생자치 대표자 분들은 충분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각자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의결에 참여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국어국문학과 김홍윤 학우님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어국문학과 김홍윤: 네, 국어국문학과 김홍윤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총학생회장께서 몸소 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신 점이 오늘 간담회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정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도 판단을 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고, 저는 그것의 방향이 정책적으로 총학생회장의 자리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성평등위원회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임기 시작 전에 총학생회장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이니 저의 진심이 가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의 지위입니다. 간담회는, 1학기 간담회의 경우는 속기록이 없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집장단이나 다른 이거를 주취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의 자유도와 그런 것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지난 2차 학생총회에 발의되었던 어떤 안건 중에서 2차 학생총회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없게끔 비민주적인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총학생회 내부 실무진뿐만 아니라 어떤 대표자들, 어떤 학우 분들한테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그 중에 일부는 전학대회로 이관하겠다, 그 중의 일부는 간담회로 이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학대회 이관 건에 대해서는 전학대회가 그 다음으로 큰 규모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가 되지만, 간담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 자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간담회는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자리인데 그게 학생총회 이야기를 할 얘기였던 것이 간담회로 넘어오는 것이 온당한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지 않고 총학생회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온당한가. 그리고 이 간담회라는 자리는 사실 의사결정진행기구가 아니라고들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총학생회의 공약 중 하나일 뿐인데, 그런 식으로 의결기구를 대체하는 자리에 놓으면서 이 간담회의 지위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시간이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네, 총학생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총학생회장님께서 반론을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피드백을, 총학생회장이 이를 뭐 수렴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회과학대학 단과대 운영위원회로 돌려보내는 일종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행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피드백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반대한다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했었는데,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대학 단과대 운영위원회의 자발적인 그리고 자치적인 행사 권한 행사를 침해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자치성을 침해하신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지금 약속한 25분까지 약 30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 강서윤, 사회학과 강서윤 학우님 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학과 강서윤: 빠르게 하겠습니다. 앞선 박성혁 학우님의 말씀처럼 저도 사회과학대학 소속 위원으로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반론을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단과대학에서 그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상관 없이 반론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25분 2초가 지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한 분의 학우분께서 이전의 추가 발언을 요청하신 바 있어서 이현수 학우님까지만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학우님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과 관련해서 총학생회 회칙상의 근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총학생회 회칙 부칙 제 3조에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위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를 따른다고 나와있고, 저번 전학대회에서 가결된 통과안건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비슷한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이라는 건 원래, 아, 그 영국 회의법에서 예를 든 것이라서 불문법적으로 형성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가 참 어렵지만 뭔가 그래도 어떤 권위있는 근거를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바로 찾아, 바로는 못 찾는데 찾아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아까 논의 안건에서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첫 번째 문단 앞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총학생회장님이 아쉬울 것 같아서 원래 그것 때문에 발언을 신청한 건데요, 학생총회 진행 과정에서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가, 아, 짧게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권한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된 어떤 선출된 학생대표자로서 필요한 권한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으로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게 우리 학생자치의 민주과정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태도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독단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집행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 본인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 간담회, 아니 뭐래 2차 학생총회에서 그렇게 발언권 박탈하고 회의실을 무단으로 종료하고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게 총학생회장님께서 이번에 깨닫고 반영하셨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대한 총학생회장님의 깨달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번 학생총회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저번 학생총회에서 있었던 사태에 대한 학생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학생회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현재 첫 번째 논의안건은 시간이 다 되어 마치기로 하고 두 번째 논의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의안건은 62대 총학생회 및 조사위 2차 가해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역시 25분간 진행되며 제안 설명은 총학생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논의안건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62대 총학생회 및 조사위 2차 가해에 대한 논의입니다. 2020년, 62대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의 성희롱 사건과 총학생회 내부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진상규명 TFT가 구성되어 총학생회 내 2차 가해 발생 사실과 총학생회의 피해자 중심적이지 못한 미흡한 사건 대처를 규명하였습니다. 이후 2차 가해 지목인 3인이 지목되었으나, 62대 총학생회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이루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습니다. 6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운위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차 가해 지목의 경위와 진상규명 TFT 결론 이후 62대 총학생회의 사건 해결 과정을 조사하였고, 2차 가해 지목인 3인의 가해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운영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냈고, 62대 총학생회와 가해자들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편, 63대 중앙운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단과 일부 중운위원이 2차 가해적 발언을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총학생회장단의 증거 관련 발언과 타 중운위원의 62대 총학생회 사건 처리 옹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안건을 빌어 발언의 경위와 의도를 학우 분들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서는 62대 총학생회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학생자치의 조사 및 진상규명 활동, 학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성평등한 학생사회를 위한 학생자치의 행동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추가 제안 설명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발언해주시겠습니다. 네, 제안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어 제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63대 중운위 내에서 2차 가해적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이 간담회 자리를 빌어 피해자분과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마찬가지로 이전 논의와 동일하게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총학생회장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 네, 어 앞서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단과대 동아리에서도 이전에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해당 단과대 동아리 질의서에 답변을 해서 한번 해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총학생회장단의 발언 중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2차 가해자 3인에 대한 증거를 (발언 중단)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2차 가해 관련해서 발언하게 되는데 발언을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잠시 스피커를 끄시거나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발언이 끝날 때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 조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설명을 하면 당시에 이제 지적이 되었던 것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물적 증거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이었고 진상규명 tft에서 2차 가해 사실을 규명한 사실을 반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진상규명 tft의 결론을 반복한 적은 없습니다. 진상규명 tft가 내부 2차가해 사실을 규명한 것을 결론으로 했고, 그 결론 위에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진상규명 tft 입장문 내용도 회의에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그 발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학생회장단이 62대 총학생회 내부 2차가해 사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tft의 결론에 입각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2차가해자 3인이 지목이 되는 그 경위와 그 진상규명 tft의 결론이 나온 이후에 62대 총학생회 내부 조사나 처벌 관련 과정 등을 명확히 당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중운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면서 개별 입장을 묻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서 해당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일단 그 증거라는 것이 물리적 증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사건 특성상 물리적 기록으로서 사건의 경위나 과정이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총학생회장단이 당시에 잘 인지하고 있었고, 물적 증거를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당시 그 답변서에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증거라는 단어를 이미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물적 증거주의로 비쳐질 수 있고 텍스트 상에서, 물적 증거주의를 주장하는 관점은 피해자중심적인 사건해결에 위배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단어 사용에 총학생회장단의 잘못이 있었고 당시 답변서를 통해서도 표현의 잘못을 사과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이 끝났다는 사실을 채팅으로 남기겠습니다.

집행위원장 배성호: 다음으로 정치국제학과 박상혁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상혁 : 네, 감사합니다. 정치국제학과 학생회장 박상혁입니다. 그, 일단은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전에 저번 논의안건에서 말씀드렸던 사회과학대학 단위 자치성 침해 명백한 사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논의한 것을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치성 침해라는 점 명확히 해두고 다시 한번 사과 요청드립니다. 더하여서 저 또한 당시 63대 중운위의 이차가해와 관련해서 당시 소상한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발언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언에 있어서 듣기가 힘드시거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잠깐 나가주시거나 듣지 않아주셔

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총학생회장님께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ttt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ttt 조사만으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명예 탄핵이나 명예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차가해로 지칭된 분들에 대한 이차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운위에서 신중히 포지션을 잡아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63대 중운위의 이차가해라는 게 물증주의 때문에 나온 이야기만은 아니죠. 가해자 분들을 향해서 그 분들이 또다른 2차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말고도 63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수많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2차가해 표현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발언을 하신 중앙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입장문을 올리신 것처럼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하여서 꼭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발언 끝났습니다. 발언 끝났다고 저도 채팅 올리겠습니다.

집행위원회 배성호: 추가적으로 발언하고자 하시는 학우님께서서는 채팅창에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공공인재 이현수입니다. 먼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논의가 1차 학생총회, 전학대회, 1,2차 간담회 반복되는 것은 총학생회장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기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서면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총학생회장님만 2차가해를 하셨던 게 아니고 중앙운영위원회 안에서 다른 2차가해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현재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과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학생회장님과 당시에 2차가해 발언을 하셨던 중앙운영위원분들께서 중앙운영위원회는 스스로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명을 걸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통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2대 임기 때 성평등위원장님께서 사과문을 쓰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성평등위원장으로서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대응이 미흡한 이유는 그 이후에 성평등위원장이랑 집행국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총학생회 내에서 사실은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심했고 저도 그 과정에서 잘린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가 총학생회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으로는 당연히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독립성과 권한을 총이 보장하는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논의안건 주제 1번에서 보여주셨던 총학생회의 태도를 보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학생회가 62대 총학생회 내 성폭력 사건 및 2차가해 사건 해결에 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총학생회를 믿고 앞으로 총학생회 내에서 공동체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반대해야 하고 앞장서서 침묵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고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주시길 것인지 그리고 또 독립적 공간 보장해주시길 것인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가 61대 임기 마지막에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공간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들어갔었는데요 당시에 김민진 총학생회장이 성폭력 사건 상담 공간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상담 공간이 필요하면 총학생회 내 회의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고 총학생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어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바로 그 직후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의 공간 독립은 총학생회 내에서 앞으로 총학생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제로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권한,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총학생회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예방은 몰라도 충분히 대응할 역량을 앞으로라도 갖추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학우분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학우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의 주제는 62대 총학생회 및 조사위 2차가해에 대한 논의입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그 직전에 사회과학대학 단운위원회 자치성 침대에 대한 사과 요청부터 현재 2차 가해건에 대한 총학생회장 입장까지 지금 총학생회장님께서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학생회장님께서 발언을 안해주셔서 간담회 취지에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발언 정리 중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총학생회장님 꼭 발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총학생회장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우선 사과대 운영위원회에 사과하라는 것은 이번 논의안건 주제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과 제 의견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전달한 바가 있고 속기록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일부 중운위 위원분들의 2차가해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운위 차원에서도 입장문을 표명할 때 사과의 말씀도 함께 기재하여 입장문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네, 죄송하지만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관련 속기록까지 검토했는데 총학생회장님께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를 모아서 가져가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님께 사회과학대학에 가서서 다시 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발언의 취지는 분명 사회과학대학 자치성에 대한 침해이고요.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더하여서 중운위 관련 입장문 충분히 잘 읽었고 개인적으로는 학생자치에 있어서 남을 이정표가 될 훌륭한 입장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3대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 성평등 회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입장문 올리기 전에 피해자 분께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성평등 회칙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개로 처리한 문제인지는 별개로 따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과에 대해서도 작년 확대운영위원회 이인재 총학생회장이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과를 해서 일방적인 사과를 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쟁대 학생회장이었기에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관련 선례와 회칙들을 충분히 거쳤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다음 발언권을 드리기에 앞서 현재 박성혁 학우분과 총학생회장님, 논의안건에서 벗어난 주제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우분들이 논의안건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주고 계신 만큼 논의안건 이외의 주제는 추후에 별도의 방식을 통해서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께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학우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연히 성폭력 문제는 중앙대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2주전이라고 떠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난 가해자 3인에 대한 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2차 가해자를 규탄하기 위해 주문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62대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장은 피해자중심적 태도와 적극적이고 투명한 사건 해결이라는 학생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해자 처벌과, 이견 소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만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62대 부총학생회장과 가해 지목인 3인 파면된 국원 1인 등 2차가해자들은 학생자치공간 출입, 학생 자치 행사 참여 등 일체의 학생활동을 중단하라고 하셨는데 이 입장문을 업로드하기 이전에 있어서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성평등위원회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장문을 검토하면서 학생 사회에 실효성

있는 입장문을 쓰기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하나에 대해 저는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이 이미 학생자치를 관둔 경우도 많고 졸업 휴업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위의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는가가 저의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원론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그냥 어딘가로 도피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문장일 수 있고 실제로 그 당시 부총학생회장은 임기를 관두고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알찬 한 해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해자로서 학생사회가 가해자에게 진정으로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 안이었는데에 대한 의문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실효에 대해서 여쭙했을 때 이미 조사위 내부에서 의결까지 마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해주셨고 이대로 발표해서 성평등위원회로서 아쉬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가 직접 중앙대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에서도 2차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입장문 작성자도 2차가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논의의 결과를 거렸다는 것을 학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의문점은 그렇다면 조사위 안에 있었던 2차 가해 발언자에 대해서도 조사위에서 조치를 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조사위 담당하셨던 총학생회장님으로부터 듣고 싶고요. 인권규약을 공약으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걸 더 넘어서서 이 총학생회 내부, 중앙대 내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생각이신지 다짐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입장문을 내기까지 고생하셨던 수많은 중운위 위원분들과 그리고 총학생회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현재 논의안건 시간 23분 2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학우분께서는 채팅창에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총학생회장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네, 우선 조사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성평등위원장 부위원장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발행한 입장문은 피해자분께 사전 확인된 것이고요 피해자분께서 허락하신 뒤에 입장문을 발행하였습니다. 인권규약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학우분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고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중앙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일어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하위원회 주무부서와도 함께 논의해서 성폭력 사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현재 논의안건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만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님 빠르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인권 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하위원회 주무부서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서가 성평등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인권규약을 만들고 중앙대학교 내 반성폭력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산하위원회 주무부서라고 부르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두 번째 논의안건 역시 다양한 학우분들로부터 다양한 논의들이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논의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의안건은 5월 학생총회 진행방법 및 후속대처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역시 25분간 진행되며 제안설명은 총학생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논의안건 세 번째 주제입니다. 5월 학생총회 진행방법 및 후속대처에 대한 논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학교 본부 재정정보 공개를 안건으로 하는 학생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총회는 아쉽게도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했고, 안건은 각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오늘의 간담회로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학생총회에서

는 총회 개최 전 참여자의 발언을 제한했으며, 총회 무산 이후 4월 학생총회와 같은 자유토의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이는 총회 개최 전 참여자의 발언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4월 학생총회 소집 시와 같은 발언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총학생회의 진행상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학우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학생총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총회 안건의 하위 의결기구 및 간담회 이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서는 5월 학생총회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 공유와 학교 본부 재정정보 공개 의제의 후속 대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논의에 부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3번 논의안건 역시 이전 논의안건과 동일하게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을 얻어 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이번 안건에 대해 당사자로서 먼저 발언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요청드렸는데요, 지난번 2차 학생총회 당시에 이미 여러번 입장을 밝힌 점이 있지만 발언의 난립, 혐오발언 문제, 그리고 발언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해 주셨는데 일단 1차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터져나오는 것을 발언의 난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솔직히 유감이고요. 학우들의 발언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학생대표기구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며 너무 발언이 많이 나와서 진행이 어렵다면 진행상 필요한 조치들을 의장과 사회자가 어느정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반발할 학우는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과 사회자의 현장 판단 속에서 발언을 하는게 발언을 전혀 못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발언규칙이 없어서 발언을 못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혹시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학대회 규칙은 이미 있으니 이를 준용해서 참여하신 학우들에게 제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혐오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에 혐오발언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약속해야 안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혐오발언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에. 삼천 여명이 모인다고 갑자기 혐오발언이 사라지는 게 아님. 그렇기에 혐오발언 문제 역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학생회장님께서 발표하신 입장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그 입장문을 통해 특히 저희 단위에게 꼭 짚어서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러기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총학생회에서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프로젝트 탈곡기와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총학생회와 대화하길 원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학생회에서 대화 방식에 대해 수용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의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회신이 없었기에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과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일 있었던 사태에 대해 그 상황을 규정하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에는 당시 총학생회에서 줌 채팅을 통한 질문이나 논의는 완전히 전체 채팅은 못하는 상태였고. 그렇기에 저희단위 소속은 아니시지만 박성혁 학우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을 때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오다가 얼마 후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학생회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기에 현장을 찾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찾아가서 책임있는 분들의 의견을 일부 들을 수 있었지만 부총학생회장님도 현장 진입 후에야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학우분들의 대화를 완전히 막은 것 뿐만 아니라 두 시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천여명의 학우분들이 계신 줌 회의실을 갑자기 종료한다는 결정을 직전에 듣고 나서야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줌 회의 종료 전에 듣고 줌 회의 종료라는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의장석이 있는 쪽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중앙집행위원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물리력을 동원해서 문을 봉쇄하셨고 저희가 거기에 난동을 부리러 가거나 총학생회장님을 폭행하려 간 것이 아닌 총학생회장님의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듣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봉쇄하셨고 그때 저희 구성원 중 한분도 문에 끼셔서 다치셨고 결국에는 계속 현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상자가 더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장에서 구호만을 외치고 해산했습니다. 이를 폭력으로 규정 하는 것은 평면적인 판단. 이에 대해 저희의 입장을 듣고 나서도 같은 생각이실 수는 있겠지만 확인이라도 하고 이런 입장을 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현장에 있었던 것은 저희만 있었던 것만 아닌데 프로젝트 탈곡기를 꼭 짚어서 사과하라고 하신 것은 이 사태의 해결 이전에 저희 단위가 총학생회에 대해 종종 비판적 입장을 낸 것이 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

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프로젝트 탈곡기를 집어서 모든 책임을 프로젝트 탈곡기에만 돌리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바뀔 순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단위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총학생회와의 대화나 논의를 전제하고서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으로써는 총학생회의 지난번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학생회가 저희 단위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서 밝혀주신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시고 1차 학생총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신 점, 발언권을 비민주적으로 박탈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도 무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현장에 모인 학우들의 민주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발언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회의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님의 학생총회의 의장으로써 분명하게 사과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다음으로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네, 감사합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입니다. 전학대회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 유감이고요, 말씀드리자면 총학생회 측에서 내세웠던 명분이 3개정도가 있었죠, 총회 시작 전에 채팅을 막은. 첫 번째가 혐오발언 막기 위함입니다. 혐오발언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회의에서 혐오발언을 막으려면 혐오발언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학우분들께 설명하는 절차와, 혐오발언이 발생했을 시 어떤 메뉴얼에 따라 처리할지가 학우분들에게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채팅과 발언만 막아버리는 것은 사실상 일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직무태만이고요. 둘째는 통과안건 통과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전학대회나 다른 회의 생각해 보시면 통과안건에 관한 의견을 하기 전에 통과안건에 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 또한 발언이지요, 자기당착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발언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시는데요, 1차 총회 때 수십명에 달하는 학우분들이 발언 해 주셨는데 이게 난립이었나요? 1차 총회에서 학내 언론사들의 평가도 그렇고 다른 학우분들의 평가도 그렇고 특히 새로 입학한 21학번 분들은 학생자치장에 대해서, 학생자치대 대해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총학생회에서 발언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정의한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2차 총회가 무산된 그 자리에서 총학생회장님이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총투표 관련해서는 전학대회에 이관하겠다고 하심. 1차 총회에서 거의 430분이 넘는 학우분들께서 발의된 안건인 만큼, 이거는 총투표를 물리고 싶거나 총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면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바로 종료를 하실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하나도 안거치셨습니다. 더해서 전학대회 때 총학생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읊소거랑 채팅 알림 문제를 14차 국장 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하셨다고 집행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내 언론사를 통해 12차부터 14차 회의록을 전달받았는데, 죄송한데 그런 내용 회의록에 하나도 없던데요? 회의록에 국장 위원장단 내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는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님 전학대회 자리에서 거짓말 하신건 아닌지 의문이 들고요, 만약 논의를 하셨는데 회의록에 적지 않은 거면 회의록에 적지 않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당당하시고 명분이 있으셨으면 회의록에 적고, 회의 전에 학생대표자들과 학우분들께 공개하셨어야죠.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알리셨어야죠. 그런데 중앙운영위원회에도 비밀로 하고, 사회과학대학 회장이 현장에서 카톡으로 항의하는데 확인도 안하시고, 국장 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 나와있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논의하신건가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당일 스태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들었는데 이런 총학생회 내부 논의 프로세스가 정말 민주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중앙집행위원장님과 총학생회장님의 소상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먼저 들어와있는 발언부터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과 최재인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과 최재인: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최재인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2차 총회 때 사건을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때 가셨던 분들이 최소한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줌

을 이제 종료하자마자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더 이상이의신청 없이 바로 귀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때 오셨던 분들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다음으로 사회학과 강서운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과 강서운: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강서운입니다. 앞서 최재인 학우님께서 현장 방문했던 사람들의 의견 듣고 싶다고 하셔서 간단히 빠르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줌이 종료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대치상황이 종료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방문했던 인원은 총학생회장, 의장단과 소통을 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인데, 그 소통은 학생총회 진행에 대한 의견 개진이었고요, 따라서 학생총회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이미 줌이 종료된 시점에서 내부에서 의장과 대화하는 것이 이미 줌이 종료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진행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대치상황을 종료하여 물러났습니다.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언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학생회 소통방식에 지속적인 의문이 듭니다. 지금 안건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전에 2차 학생총회에서 마이크와 채팅을 막는 등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오늘 간담회의 경우에도 보고하는 데 질문에 있어서도 임의로 두 명의 질문 인원을 제한 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규칙을 정하신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학우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시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2차 학생총회 당시 소통 제한을 결정한 것이 의장단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일방적인 결정 방식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소통이 어려운 비대면 상황에서 간담회 속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소통방식 결정 또한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학대회도 그렇습니다. 표결에 영향이 없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당연히 설명해주셨어야 하고 설명을 하셨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표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를 학우분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편의가 우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편의를 위해 민주성을 후순위에 둔 것입니다. 이제 1학기가 끝났고 2학기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총학생회 내부에서 민주적 소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임기에서는 진정으로 소통의 문법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차 학생총회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하셨으면 하고요,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강서운 : 대치상황을 종료하여 물러났습니다. 네,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발언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학생회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문이 듭니다. 지금 안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2차 학생총회에서 마이크와 채팅을 막는 등의 소통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오늘 간담회의 경우에도 보고 하는데 질문에 있어서 임의로 두 명의 질문 인원을 제한하신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시간 관계 상 그러한 규칙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 학우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다. 2차 학생총회 당시에 소통제한을 결정한 것이 의장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방적인 결정의 방식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소통이 어려운 비대면 상황에서 간담회 속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편의를 위한 소통방식의 일방적인 결정 또한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학대회도 그렇습니다. 표결에 영향이 없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방식을 바꾸기로 현장에서 결정하셨다면 당연히 설명을 하셨어야 하고, 설명을 하셨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표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를 학우들께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편의가 우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민주성을 후순위로 둔 것입니다. 이제 1학기가 끝났고 2학기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총학생회 내부에서 민주적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임기에서는 소통의 문법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2차 학생총회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하고요,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다음으로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 네, 안녕하세요.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학우분들께서 지적해주셨던, 그 당시 음소거와 채팅 얼리기의 논거로서 인권보호, 혐오발언 규제가 있었던 점이 문제적이라고 말씀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총회 이후 이뤄진 총회의에서 성평등위원회가 내부 피드백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학우들께 전달을 해드리자면, 학우들이 의사진행발언을, 그 아예 회의가 성사되기 전에 발언을 하는 것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의장단과 그때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총학생회 임원들은 혐오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둘째 민주주의를 위한 자리인데 민주주의적인 사태를 방해하기 위한 근거로서 인권이 인용되는 것은 인권을 요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는 총학생회가 더욱 잘 반영해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안 내지는 저도 궁금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바인데, 학우분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과연 이렇게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총학생회 내부에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직전 총회의에서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국장위원장단 회의에 국/위원장분들의 의결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어서 여태까지 국장위원장단 회의에는 참여한 바가 없으나 만약 국장위원장단 회의에서 해당 얘기가 나왔다면 국장과 위원장들께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었다면 없었다고 학우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총학생회 일원으로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구요, 이렇게 두 가지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다음으로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 공공인재학부 이현수입니다. 아까 생명과학과 최재인 학우님께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물론 강서운 학우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지만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학생총회가 끝난 후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헤어진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현장에 총학생회장의 개인공간에 들어가서 총학생회장을 때리러 갔다가나 집단폭행 퍼포먼스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인 학생총회 의장석에서 학생총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학생총회 줌 회의장이 완전히 종료되고 더 이상 공적인 의미가 없어진 이상은 더 이상 현장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뭐 총학생회와 싸우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험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갈 이유가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떠났구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저희 의견을 전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 자체가 사라져서 목표를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해야겠다고 다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으로서 학생총회 이후에 프로젝트 탈곡기의 입장문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맥락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적인 공간으로서 학생총회, 의장석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애초에 총학생회와 싸우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줌 종료 이후에.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제가 발언을 중간에 틈이 나면 하려고, 아까 저에게 질문 주신 학우분이 계셔서, 했는데 지속적인 발언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짧게만 얘기하고 다음 인권복지위원장님께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우선은 국위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게 맞냐, 내부 인원이 그 현장에서 당황스러워했었다, 라고 하셨는데 저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국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얼마 전 사전질의를 통해 들어와서 이 내용을 비정기회의에서 확인한 바 있고요, 다음 인권복지위원장께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김성민 :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학생총회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게시는 국장 위원장들이 발언을 조심했던 이유는 현수 학우님께서 앞서 논의안건 1번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직위를 내려놓고 학우로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고, 그 당시 학생총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는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발언을 조심해왔던 거고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바를 살펴보면 그 안에 분명 그 회의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열심히 일해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분위기를 깨고, 사실 재인 학우가 먼저 켜고 생각하고, 저도 그에 힘입어 발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증 말씀 드리자면, 현장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 하셨고, 싸우러 간 게 아니니 험악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수고하셨다, 라고 하면서 편하게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셨다고 했는데, 험악했습니다. 처음에 문을 타고 들어오셨을 때 분위기를 떠올려보자면 저희가 속기를 하고 있는 인원도 있었고 그 당시 각자 맡고 있는 역할로 인해 한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소음이 일어났었고 여러분들의 구호를 듣는 와중에 계속해서 사진이 찍히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당황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계신 분께 가서 찍고 계신 거 맞냐, 빨간 불 들어오는데, 허락 받고 찍고 계신 것 맞느냐 물어봤었고, 그렇게 물어봤었던 경위는 그 분들이 언론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함께 오신 기록을 위한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알고 보니까 학내 언론사였었고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영상을 찍고 계신 분께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마스크를 내리면서까지 저의 얼굴을 다 공개하면서까지 그 영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허락을 구하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언론사임을 밝히지 않으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상 촬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줌이 종료된 상태에서 앞문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다시 들어오셔서 줌을 켜 달라 라든지 당시 의장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황 종료하셔서 적당한 자리에서 인터뷰 따시고 계속해서 언론을 등 뒤에 두고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이, 저희는 그 장소를 정리하는 동안 가우똥했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건 방금 부위원장님의 발언 중에 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총학생회 일원으로서 궁금하시기보다는 좀 더 책임지는 태도로 나아가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내부 피드백 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는 음소거와 채팅과 관련하여 인권보호나 혐오발언 규제를 근거로 그러한 행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 받으셨기 때문에 총학생회 일원으로서 나아가시는 방향이 총학생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가지 발언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현재 논의안건 시간이 25분보다 지났습니다만, 앞서 1번 논의안건과 동일하게, 제가 앞서 채팅창을 통해서도 표시를 했는데, 앞서 발언 요청했던 인원들까지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형평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과 최재인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과 최재인: 우선 강서운 학우님과 이현수 학우님께서 입장을 표명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탈곡기 측에서 입장문 하나를 부탁드려도 될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학생총회를 참여했던 학우분들 중에서 잠깐 있었던 소란으로 인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학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우분들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셔서 입장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신상 발언을 요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다음으로 기타 안건이 남아있습니다. 기타 안건에서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여 조금 더 논의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해당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추가적인 발언권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장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 전학대회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우선 전학대회에서 통과안건에 대한 의결을 받는 것은 공식적으로 성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점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난립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지만 총회 성사와 주목적과 벗어나는 발언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워딩을 사용했다는 것, 받아들이시는 학우분들께서 표현이 과하게 느

꺼지셨다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학생총회 당시 시위 주체 측의 항의 방문과 부상자 발생으로 인해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 스태프 분들도 심적으로 많이 다치고 두려운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집행부 스태프를 대표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이상으로 3번 논의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기타안건을 올려주신 학우분이 계신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올려주셔라, 라고 하면 선착순으로 되는 만큼, 그 시간에 맞춰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안전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상정된 기타 안건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 25분간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타 안전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두 가지의 기타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기타 안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명은 지난 안건에 대한 신상발언 시간 확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바가 세 번째 논의 안건에서 진행했던 신상발언 두 분이 신청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 네, 이해하신 바가 맞고, 신상발언을 요청해주신 이현수 학우분과 저의 신상발언 시간을 요청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이해했습니다. 신상발언시간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기타안전안건으로서 해당 앞서 논의했던 논의명과 비슷한 주제로 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학우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 발언 준비 되셨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재인 학우님과 김성민 학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 입장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성민 학우님께서 현장에 들어오셨던 그분, UBS 기자시거든요? UBS 기자님의 어떤 취재가 부담스러웠고 또 초상권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분이 UBS이신 것만 알지, 저 그분 성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UBS 취재의 활동에 대한 것은 저희로서도 당연히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총학생회로서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UBS의 취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UBS 측에 제기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장에 들어갈 때 소음이 생겼던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입장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어떤 사적인 공간에 문을 따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인 학생총회 의장석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문 앞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던 것을 중앙집행위원장님께서 물리력으로 봉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고 그 뒤에 갑자기 봉쇄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그 당시 당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집행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것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거라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그 현장에서 지금 당장 줌을 단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요청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장이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집행부 분들을 깊이 신경 쓰지 못하고 이렇게 돌입을 하게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단체의 입장으로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당장 줌 회의를 단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줌이 단힌 이후에 다시 여는 것은 1000명이 모여있는 학생총회 줌 회의방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의장님한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현장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정리된 입장을 입장문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

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한 것이고요. UBS에서 현장에서 인터뷰한 것은 학생총회 끝나고 입구 쪽에서 인터뷰한 것은 UBS 쪽에서 인터뷰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재인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일단 그 당시 상황이 저희 입장문에 자세히 나와있기는 한데요.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셨다고 하시면 추가적인 입장문이 필요할지는 단체 내부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지금 다양한 기타안건 상정된 것 이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바 있는데 1번 기타안건이 마치는 대로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권은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네. 저는 아까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학생총회 이후 총학생회 내부에 어떤 피드백이 오갔더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왜 총학생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총회의 기록을 학우분들께선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잘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거를 학우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김홍윤이 아니라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학우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 특히 인권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번 간담회에서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어쨌든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제 의도가 곡해된 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진심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신상 발언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앞서 제가 박성혁 학우님께 1번 기타 안건이 마치는 대로 주겠다고 했는데, 1번 기타 안건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셔서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1번 기타 안건에 대한 추가적으로 발언권 얻고 싶으신 학우분들 계시면 채팅창을 통해 발언권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혁 학우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네. 감사합니다. 1번 기타 안건이 혹시 저 두 분의 신상발언만 이어지는 걸로만 제가 이해를 했었어서 이거를 3번 안건의 연장선상으로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추가적인 발언으로 이어가도 될까요? 네 그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집행위원장님께서 '저보다 총학생회 내부 사정을 더 잘 아시니 당황스럽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회의록에 일단 제가 확보한 국장위원장단 회의록에는 해당 내용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논의되었다면 왜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는지.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논의한 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걸 숨겨야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왜 숨겨야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걸 두고 집행위원장님께서 '나보다 더 총학생회 내부 사정을 더 잘 아시니 당황스럽다'라고 답변하시니까 대단히 좀 당황스럽고요. 네, 모욕적이기까지 합니다. 답변 태도가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가 공적자리인 만큼 비꼬기는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회의록을 논의를 하셨는지, 논의를 했다면 회의록에 왜 기재하지 않았는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논의를 하셨더라면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이 정상이죠? 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우선 박성혁 학우님께서 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다음 발언권이 교육자치국장 황재은 학우님께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황재은 학우님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육자치국장 황재은: 네, 괜찮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우선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그 앞서 질문해주신 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 우선 국위원장단 회의록을 언론사를 통해 입수해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국장위원장단 회의록은 총학생회 내부 문건입니다. 이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고요. 어 국위원장단 회의록은 어 우리가 중운위 회의록과 다르게 내부로 공개해놓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어떠한 논의를 했지만 간략하게 적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위원장들과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어 먼저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어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 언론사로부터 추출을 받았는데 어느 언론사인진 밝힐 수 없고요. 언론사가 누구로부터 제출을 받았는지도 밝힌다면 그건 총학생회 내부에, 뭐 내부에서 유출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게 누군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답변해주실까요? 회의록에 왜 기재하지 않으셨는지?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어, 앞서 제가 답변드린게 좀 부족했나요? 그 저희가 국위원장과 합의한 바에 의하면 이전에 회의되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적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는 여기에 사실 국, 위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 들한테 물어봐도 이미 증명이 된 이야기고요 회의록에 적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적기 때문에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위원장단 회의록은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분들과 아니 학생총회 자리에서 발언권을 제약하는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총학생회 내부에서 회의록 적는 방식도 논의한 내용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다 적는 것이 회의록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게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되게 의문스럽구요. 그리고 총학생회 내부에서 학생총회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을 제약하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놀랍구요. 더하여서 아까 성평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바에 따르면 그럼 이게 국장 위원장단만 알고 부위원장이나 기타 총학생회 인원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전달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의문스럽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운영위원회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게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네, 문건이 어디서 나왔는가 중요한게 아니죠. 총학생회에서 내부에서 회의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죄송하지만 학생회 다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회의록 그렇게 적으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기타안전 논의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만큼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내부의 프로세스는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자치국장 황재은 학우님께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교육자치국장 황재은: 네 안녕하세요 교육자치국장 황재은입니다. 제가 발언 요청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에 공공 인재학부 이현수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같이 오신 UBS인원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같이 오지 않으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간에 진행하던 도중에 화장실을 다녀왔었는데 문 앞에 이현수 학우님과 UBS 인원으로 확인되는 여성 한 분 총 두 분이 계시길래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여쭙보니, 이현수 학우님께서 UBS에서 왔고 취재 요청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재 요청서 발송 여부에 대해서 여쭙보니 취재요청서는 발송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내부 대표인원에게 알리겠다 하고 들어가서, 저 혼자 들어가서 저는 집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집장님과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해당 발언, 정말로 UBS와 컨택 없이 각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UBS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현재 기타안전의 주제로 지난 논의안건이었던 5월 학생 총회 진행 방법 및 후속대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논의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긴 하지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리자면, 따로따로 왔다가 오는 길에 만났고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구인지 성함을 모릅니다. UBS 신 것만 알고 있고요. 그냥 UBS에서 오셨길래 아, 이 분 UBS에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UBS라고 써 있는 카메라를 들고 계셨거든요. 그럼 당연히 UBS니깐 UBS에서 오셨어요 라고 소개만 드렸습니다. 뭐,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분. 성함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교육자치국장 황재은: 근데 제가...말씀드려도 되나요? 발언해도 괜찮은건가요?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어, 네, 짧게 발언해주시겠습니까.

교육자치국장 황재은: 네, 제가 듣기로는 이현수 학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성분께서 UBS에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UBS에서 왔습니다. 취재 요청드립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현수 학우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UBS 측에서 오신 인원인줄 알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서 제가 오해를 했던건지 아니면 현수 학우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던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네, 그, 구어체라서 형태소가, 예,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UBS 소속이 아니니깐 당연히 제가 취재요청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분이 UBS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뭐 '이 분이'를 빼먹었나 봅니다. 아무튼, 네, 맞습니다, 예.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다음으로 발언권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우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집행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내부분건이니 말을 아끼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네요. 그런데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총학생회 국장위원장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총학생회 회칙상 제반의결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우분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관련된 결정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하는게 맞고요, 관례상. 중요한 논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총학생회장님께서 집행부 보고를 하십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고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학우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는 국장위원장단에서 논의를 하시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학우분들이 확인 할 겨를이 없죠. 앞으로 총학생회 이런 내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비민주적 프로세스를 유지하실 생각이시라면 국장위원장단 회의록도 같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생회에서 있는 많은 학생회에서는 집행부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만 여기서 예외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총학생회 내부의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위원장단 회의록도 공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속기록도요. 회의록과 속기록 모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다음으로 인권복지위원장 김성민 학우님께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김성민: 네 마침 이어서 발언하게 되었는데요. 발언해주셨던 세부요소들 중 한 가지를 바로잡고자 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부위원장에게 회의록 내용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총학생회 내 논의프로세스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양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국장위원장 회의내용이 부위원장에게 내려가지 않는 문제는 부위원장의 문제이고, 위원장들은 국장위원장단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각자만의 방법으로 자기의 국과 위원회에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할 의무를 가지고 항상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러한 것이 잘 진행되지 않아

서 초반부 회의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국이나 위원회의 이름이 드러나면서까지 국장 위원장의 의무를 다 해달라 라는 발언이 진행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장위원장단 논의 프로세스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진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집행님께서 저희가 국장위원장단 회의에서 중요한 것만 적는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님께 수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저한테 말씀하신거니 제가 간략하게 반박해도 될까요?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네. 제가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국장위원장단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다른 총학생회 내부인원 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분들,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에도 공유되지 않았던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 프로세스를 문제삼은 거고요. 그리고 총학생회 내부에 있는 국장위원장단 여러분께서 학생총회 발언제한을 결정한 당사자인만큼 학우분들은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국장님이 이것에 찬성하셨는지, 홍보소통국장님이 찬성하셨는지, 중앙집행위원장이 찬성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확인이 하나도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비민주적 프로세스가 맞습니다. 네, 정보공개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여러분께서 조금만 생각해보신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다음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혜인 학우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혜인: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중앙문화 취재 인원으로 들어갔던 권혜인이라고 하고요. 우선 지금부터 하는 발언은 현장 중앙문화의 취재인원으로서 들어갔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다른 학내 언론의 입장을 전부 대표하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당시 총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인원이 방문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갔고 여러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항의 학생이 내부에 진입할 때 함께 이동하고 취한 것도 사실이고 중간에 인복위 원장 질문에 취재인원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 신분을 미리 밝히지 못해서 언론사의 시위촬영사실은 당황스럽다고 하셨는데 사실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총학생회장단과 이외의 인원은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총학생회 인원이란 공인으로서 현장취재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복위원장의 우려섞인 의견이라던지 이후의 부총학생회장의 현장에서 집행위원장과 총학생회장님 그리고 부총학생회장님이 찍힌 사진 이외의 것들은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학내 언론에 별도로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이제 물어보기는 하셨지만 자초지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질문을 해주셨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학생회의 일원으로서 발언에 상당성이 있으신 분이 학내 언론이 특정단체의 입장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섰다는식으로 역할에 대한 오해의 소지 발언하신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총학생회가 학내 언론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오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학내 언론사의 발언권이 모두 보장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학생회측에서 먼저 발언하셨다는 점은 유감이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키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추가적으로 발언을 요청해주신 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시간 21분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사업국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연대사업국장 하수경: 안녕하세요, 연대사업국장 하수경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에 있던 스태프였고 제가 발언자로 참여한게 아니라 스태프로 참여한 점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 첨언하고자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스태프들

이 위험을 느꼈다고 하는 점은 일단은 저희에게 사전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태프로 일을 했고 당시 거리두기나 다른 이유로 스태프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체인력이나 그 분들께 가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여유가 없었기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하나면 저희는 사전에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앉아있었고 일단 들어오셔서 사진촬영을 하셨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상황을 맞이했고 다른 스태프들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이런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대해서 촬영을 멈춰주셨으면 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구요. 저는 그상황에대한 유감이라기 보다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에게 어떤 사과나 양해의 말이나 이런 것을 구해야 했었다는 사과나 유감, 사과?의 표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학생총회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박성혁 학우님께 먼저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발언권을 먼저 넘겨드리겠습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사회자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하기전에 하수경 국장님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언론사의 역할은 정보의 전달, 취재,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취재해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저널리즘적 의무죠. 해당 내용과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사가 기여하는 것을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취재는 학생자치 내부의 공직자에 계신 분이라면 받아들여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과를 요구하던가 취재거부를 행사하신다는 것은 비민주주의고요 언론사 탄압이라고 이걸 표현하죠, 언론의 제약, 국민의 알 권리의 제약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회의록 공개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국장위원장단 주요 결정을 중운위에 보고하지 않고 내리실 생각이시라면 회의록 공개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위원장단 회의록 감출게 없으시면 공개하시면 됩니다. 학우분들의 권리 제약에 관한 의결하셨으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누가 그 내용을 가져왔고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록에 소상하게 다 적어 밝히면 됩니다. 따라서 국장위원장단 회의록 완전 공개에 대해 집행장님과 총학생회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 최승혁: 네, 기타 안건이 논의안건 3번의 연장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학생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안건 3번에 제안 설명에 나와있듯이 학생총회 마이크 음소거 조치는 개회 전 개별 발언에 대해 규정하고 그 규칙을 정할 수 없다는 진행상의 판단으로 결정했것이었습니다. 분명 해당 조치를 비판하는 학우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 결정 근거는 총회 이후에 발행한 입장문에서 기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의 규칙과 틀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방 및 혐오발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도 있었지만 비방 및 혐오발언 방지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학우분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장단이 전체 논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무를 1차적으로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단 또한 비방과 혐오발언에서 자유로울순 없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정말 드물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있는 자리가 자체로 하나의 공론장이고 음소거 및 채팅제한 조치와 자연스럽게 진행하지 않은 총학생회 결정이 자유 공론장을 막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합리적인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4월부터 이어지는 학생총회 개최의 목적은 학교본부 재정정보 공개임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은 곧 총회의 성사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각자 판단이 다를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조치를 해제하려는 직접적인 요구도 있었고 의장단이 기존의 결정을 고수하여 회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했던것은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학우 개개인의 발언을 제한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총회의가 무산된 후에 당시의 발전제한 비판여론 또한 꽤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로서는 자체적인 판단과 명분이 있었고 한편 그에 대한 학생사회의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하는 학생총회인 만큼 총학생회도 학생총회를 성사시키는데 그리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시행착오와 실책이 많았습니다. 이러한점 학우분들께서 너그러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성평등 부위원장님께서 2,3번 안건 진행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안건 2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타안건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의사 진행 발언 해도 될까요?

집행위원장배성호 :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제가 3번 안전에 대한 안전상정 경위문을 썼는데 그것을 지금 채팅창에 공유를 해 드릴 테니 이자리에 계신 총학생회가 아닌 일반 학우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제 말씀을 듣고 싶다 판단이 되시면 제가 3번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번 안전을 상정해 주신분께는 죄송하지만 이 안전이 반드시 오늘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길어서 짧릴거 같아서 나눠서 보내 드리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네 부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는 알겠으나 2번 안전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학우분들께 약속 드렸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규칙을 정했던대로 마무리 짓고 지금 채팅장으로 올려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음에 나온 자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하지만 각 질의에 대해서 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를 하실텐데요 일단 기존에 공지되었던 어떤 국 위원장단의 보고 시간도 사실 우리가 보고하는 시간만으로도 이미 30~40분이 예정시간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거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일반 학우분들께서도 이렇게나 기타 안전이 25분으로 짧을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타 안전이 저는 오늘 오기 전까지 각 안전 하나당 25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회의 시작 전 여쭙어 봤을때 모든 기타 안전을 합쳐서 25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저는 이해하게 된 바가 있고 사전에 고지해주셨다면 죄송하지만 그부분이 정말 짧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급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경의문을 공유한것은 사과를 드리나 여기 계신 학우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부위원장님 저희 총학생회가 학우분들께 약속드린 것 입니다. 저희가 저희 약속을 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그 약속이 전학대회 의결 조작이라면요?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지금 여기서 음모론을 통해서 학우분들께 혼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음모론이 아닙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제가 약간 중재해도 될까요?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네 알고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윤: 제 의사진행발언은 끝이니 다음 의사진행발언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기다려주신 학우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약속드렸던 오늘 행사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박성혁 학우분의 의사진행발언만 듣고서 오늘 간담회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혁 학우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총학생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2, 3번 안건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쉽긴 한데 시간이 많이 늦은 만큼 정상참작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2, 3번 안건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학사가 2학기에는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많고, 특히 일선 학생회에서는 관련 정보를 접할 수가 없어서 2학기 행사를 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현장에서 논의하지 않으시더라도 근 시일 내에 총학생회 측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건 좀 개인적인 부탁이고, 그리고 3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총학생회장님과 부총학생회장님이 실제 찬반 결과와 나간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의장님께서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하신 내용이고, 게다가 현장에 있던 학생 대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시인을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하게 책임을 지셔야 하는 문제고요.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사실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든, 다음 전학대회에서 해당 경위를 밝히고 사과를 구하시든 입장문을 내시든 다른 간담회를 잡으시든, 이 3번 안건에 대해서는 음모론으로 치부하실 게 아니라 학생 대표자의 현장에서의 권리를 침해하셨던 만큼 책임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 자리를 통하... 통하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후 총학생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장 배성호 : 당초 예상 시간보다 지금 한 시간 이상이 더 진행이 된 만큼 열과 성을 띠는 간담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우분들께서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주신 부분도 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나은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간담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총학생회 오늘